크랩의 마지막 테이프

Krapp's Last Tape

이 원 기 옮김

1958년 초에 영어로 집필. 초판은 《에버그린 리뷰(*Evergreen Review*)》(1958년 여름)지에 게재. 1958년 10월 28일 런던의 로얄코트 티어터(the Royal Court Theatre)에서 초연.

지금부터 전개될 어느 늦은 저녁 몇 시간.

크랩의 사실(私室).

무대 앞쪽 중앙에 자그마한 책상이 있고, 책상의 서랍 두 개가 객석 쪽을 향하고 있다.

권태로워 보이는 늙은이 하나가 객석을 향해 앉아 있다. 다시 말해서 서랍들이 달린 반대편 쪽에 앉아 있다 : 크랩이다.

빛바랜 검고 좁은 바지는 그에게는 너무나 짧아보인다. 낡은 검은색의 소매없는 조끼에는 네 개의 널찍한 주머니가 달려 있다. 묵직한 은시계와 그 시계줄. 때가 낀 흰 셔츠는 목 언저리가 열려 있고 깃이 없다.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더러운 흰색 부츠는 사이즈가 못돼도 10인치는 됨직한데 매우 좁다랗고 끝이 뾰족하다.

창백한 얼굴. 보라빛 코. 흐트러진 잿빛 머리결. 수염도 덥수룩하다.

심한 근시(近視). (그러나 안경은 안 썼다.) 청력은 매우 나쁜 상태. 갈라진 목소리. 분명한 억양.

힘이 드는 걸음걸이.

책상 위에는 마이크로폰이 달린 테이프 레코더 한 대와 녹음된 테이프 릴이 여러 개씩 담겨 있는 두꺼운 마분지 상자가 몇 개 놓여 있다.

책상과 그 주변 지역에는 강한 백색 조명.

무대의 나머지 부분은 어둠에 싸여있다.

크랩은 잠시 꼼짝않고 있다가 깊은 한숨을 토한 뒤, 시계를 들여다보고, 주머니를 더듬어 봉투 한 장을 꺼낸 다음 도로 집어넣고, 다시 주머니를 더듬어 자그마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더니 그것을 눈 높이만큼 쳐들어서 열쇠 한 개를 골라내고, 일어나 책상 앞 쪽으로 걸어간다. 그는 허리를 굽혀 첫 번째 서랍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본 뒤, 그 안을 더듬어서 릴 테이프 한 개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 보고, 도로 집어넣고는 열쇠로 잠그고, 두 번째 서랍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본 뒤 그 안을 더듬어서 바나나 한 개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 보고는, 서랍을 잠근 다음 열쇠 꾸러미를 주머니에 넣는다. 그는 돌아서서 무대의 가장자리까지 나아가서 멈춰선 다음, 바나나를 두드리고, 껍질을 벗겨, 그 껍질을 발 밑에 떨어뜨리고 나서, 바나나의 끄트머리 쪽을 입 안에 넣더니, 꼼짝않고 넋나간 듯 앞 쪽을 바라본다. 마침내 그는 바나나 끝을 씹으면서, 옆으로 몸을 돌려 무대의 조명이 떨어지는 가장자리까지, 다시 말해서 너댓 발짝을 벗어나지 않을 거리를 왔다갔다 하기 시작하며 바나나 맛을 음미하고 있다. 그는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져서 거의 넘어질뻔 했으나 자세를 유지한 뒤, 허리를 굽히고 바나나 껍질을 자세히 들여다 본 다음, 결국 그것을 한옆으

로 밀쳐낸다. 무대 끝 너머 오케스트라석 위치께까지 발을 떼어놓은 채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있다. 그는 다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바나나를 다 먹은 다음, 책상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는다. 꼼짝않고 앉아 있더니 한숨을 크게 토해낸 다음,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그것을 눈 높이까지 들어올려 열쇠 한 개를 골라낸 뒤 일어서서 책상 앞 쪽으로 간다. 두 번째 서랍을 열어 다시금 커다란 바나나를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고, 서랍을 잠그고, 열쇠 꾸러미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서, 무대의 끄트머리까지 나아가, 멈춰서고, 바나나를 두들겨보고,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오케스트라석(즉, 피트) 쪽으로 톡 던지더니, 바나나의 끄트머리 쪽을 입 안에 집어넣고, 꼼짝않고서 넋나간 듯 앞 쪽을 응시한다. 마침내 그는 하나의 생각을 떠올린다. 바나나를 조끼 주머니에 찔러 넣는다. 바나나의 끝부분이 보인다. 어둠에 묻힌 무대 뒤편을 점검하러 가볼 양으로 있는 힘껏 질어간다. 10초. 코르크 마개가 빠지는 펑 소리 크게 들린다. 15초. 그는 낡은 장부를 들고 조명 안으로 다시 들어와 책상 앞에 앉는다. 그는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입을 닦고 두 손을 조끼 앞자락에 닦은 다음 두 손을 단정하게 모은 뒤 마주 비빈다.

크랩 : (힘차게.) 아 ! (그는 장부 쪽으로 몸을 굽히더니 장부를 몇 페이지 넘긴 뒤 자신이 보고자 하는 기재사항을 찾아내어 읽는다.)…… 3번 상자…… 5번…… 릴이라. (그는 머리를 쳐들어 앞 쪽을 응시한다. 즐거운 기분으로.) 릴이라 ! (사이.) 릴ㄹㄹㄹㄹ ! (행복한 미소. 사이. 그는 책상 위로 몸을 굽혀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상자들을 조사한다.) 3버언…… 3버언…… 상자…… 4번…… 2번…… (깜짝 놀라며.) 9번 ! 세상에 !…… 7번…… 아 ! 요 쬐그만 녀석이 그런데 ! (그는 상자를 들어올려 자세히 살펴본다.) 3버언 상자. (그는 상자를 책상에 내려 놓고, 열어젖힌 뒤 그 안에 들어있는 릴들을 자세히 살핀다.) 릴…… (그는 장부를 자세히 뒤적인다.)…… 5번…… (그는 빈 릴을 자세히 살펴본다.)…… 5번…… 5번…… 아 ! 이 쬐그만 녀석이 그런데 ! (그는 릴 한 개를 끄집어 내어 자세히 살펴본다.) 5번 릴.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상자 3을 닫은 다음 그 상자를 다른 상자들이 있는 곳에다 놓고 나서, 찾아놨던 릴을 집어든다.) 3번 상자의 5번 릴이라. (그는 기계 쪽으로 몸을 굽히고 들여다본다. 만족감에 젖어.) 릴ㄹㄹㄹㄹ ! (행복한 미소. 그는 허리를 굽히고, 릴을 기계에 올려놓은 다음 손을 비빈다.) 아 ! (그는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페이지 밑 부분에 기재된 사항을 읽는다.) 마침내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음…… 검은 공…… (그는 머리를 쳐들고 공허한 시선으로 앞 쪽을 응시한다. 의아한 표정.) 검은 공이라니 ?…… (그는 장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며, 읽는다.) 수수께끼같은 그 간호원…… (그는 고개를 쳐들고,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금 장부를 자세히 보면서, 읽는다.) 내장의 상태가 약간 나아짐 …… 음…… 기억할만한…… 뭐라구 ? (그는 좀더 가까이 살펴본다.) 춘분, 기억할만한 춘분 날. (그는 머리를 쳐들고, 공허

한 눈으로 앞 쪽을 바라본다. 의아한 표정.) 기억할만한 춘분 날이라 ?…… (사이.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장부를 다시 자세히 살피며, 읽는다.) 사랑이여 — (그는 페이지를 넘긴다.) — 안녕.

(그는 머리를 쳐들고 생각에 잠기더니, 몸을 기계 쪽으로 굽히고 스위치를 넣고는 계속 들으려는 자세를 취한다. 예컨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팔굼치는 책상에 얹고, 귀에다가는 잘 들리도록 손을 나발 모양으로 만들어서 기계 쪽으로 향하게 하고, 얼굴은 앞 쪽을 향하도록 하는 등.)

테이프 : (힘차고, 다소 과장이 된 듯한 목소리, 크랩이 훨씬 더 젊었을 때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오늘 서른 아홉살이 되었다. 숫사슴의 울음 소리— (자신을 좀더 편안한 자세로 만들고자 하려다 상자 가운데 하나를 책상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자, 욕설을 퍼붓고, 스위치를 끈 다음, 상자들을 모조리 밀쳐놓고, 장부는 거칠게 땅바닥에 내던진다. 테이프를 처음 부분으로 되감고, 스위치를 켠 다음 듣는 자세로 되돌아간다.) 오늘 서른 아홉살이 되었다. 숫사슴의 울음 소리처럼 건강함. 그 옛날 몸이 허약할 때하고는 격세지감이다. 그리고 파도로 비유할 때, 현재의 내가 지적(知的)인 면에서 물마루 — 혹은 그 언저리께에 해당되는지 모든 면에서 볼 때 의문이다.…… (주저하다가.)…… 물마루 혹은 그 언저리. 근래 몇 년간을 놓고 볼 때, 끔찍스러우리만치 특수한 이 사태를 자축하기 위해, 술집에서 조용히 보냈다.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불 앞에 앉아서 옥수수 알갱이를 한 알씩 한 알씩 뜯어먹다. 편지 봉투 뒤 쪽에다 몇 줄 끄적이다. 내 소굴로 돌아와서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지낸다는건 기분 좋은 일이야. 이제 막 바나나를 세 개나 먹고 네 개째 먹고 싶은것을 가까스로 참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 실로 유감이다. 나같은 상태의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격렬하게.) 빼 버려 ! (사이.) 책상 위에 새로 조명을 설치했으니 비약적인 발전이 아니고 무엇이랴.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면 혼자라는 느낌이 덜 든다. (사이.) 어느 면에서는. (사이.) 나는 일어나서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이곳…… 나에게로 되돌아오기를 아주 (주저 주저하다가.)…… 즐겨한다. (사이.) 크랩이.

(사이.)

기질, 내가 지금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것인지 의아스럽지만, 내 의도는…… (주저한다.)…… 모든 먼지들이 — 내 육신을 둘러싼 모든 티끌이 제자리를 잡았을 때엔 그런 것들도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두 눈을 감고 그것들을 상상해보고자 애쓰고 있다.

(사이. 크랩은 잠시 눈을 감는다.) 오늘 저녁은 유난히 조용하다. 나는 귀를 곤두세우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늙은 미스 맥글로움(Old Miss

MCGlome) 은 이 시간이면 언제나 노래를 부르지. 그렇지만 오늘은 그 노래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는군. 그녀 자신의 소녀시절에 대한 노래라는 그 노래. 그녀도 소녀시절이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훌륭한 여인이기는 하지만. 코노트 지방* (아일랜드 북부 지방— 역자 주) 출신일거야. (사이.) 내가 그 나이 때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나이가 되면 나도 노래를 부르게 될까? 어림없지. (사이.) 나는 소년시절에 노래를 불렀던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이.) 나도 노래를 해본 적이 있었던가? 천만에.
(사이.)
이제 막 가버린 지난 날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들어봤다. 장부를 펼쳐놓고 따져 본것은 아니지만, 그 일은 적어도 10년 혹은 12년 쯤 전의 일이다. 이제 생각컨대, 그 시절까지도 나는 케다르 거리에서 비아카와 동거를 하다가 말다가 했던 것 같다. 그 생활을 때려치우기를 잘 했어. 잘한 일이고 말고. 아무렴. 가망이 없던 나날이었으니까. (사이.) 그녀의 눈동자에 많은 찬사를 보내는 바이지만 그 나머지 그녀에 관해서는 별로 기억나는게 없다. 무척이나 포근한 눈동자였어. 느닷없이 그 눈동자들이 다시 보이다니! 따사로왔지. (사이.) 비할데 없는 눈동자였어! (사이.) 아, 젠장……
(사이.) 이런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본다는건 소름끼치는 일이지만 — (크랩은 스위치를 끄고,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스위치를 켠다.) 새로운 회상에 착수하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은 나름대로 (주저한다.)…… 도움이 되거든. 내게도 개구장이 시절이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는걸. 그 목소리! 오, 죽겠군! 그리고 그 숨소리! (짤막한 웃음, 크랩 자신도 덩달아 웃는다.) 또 그 결말들이라니! (짤막한 웃음, 크랩도 덩달아 웃는다.) 특히 술을 자제할 것. (크랩 혼자만 짧게 웃는다.) 통계라는 것. 허용된 전제만을 믿고서 미리 여분으로 주어진 8,000시간 속에서 써버린 1,700시간. 20퍼센트도 넘는, 즉 그가 깨어있는 삶 가운데 40퍼센트나 차지하는 시간들. (사이.) 성생활에 덜…… (머뭇거린다.) 사로잡히기 위한 갖가지 계획. 그의 부친의 마지막 투병생활. 행복에의 맥빠진 추구. 도달키 힘든 여유. 소위 젊음이란 것에 대해 냉소를 보내며 젊음이 지나간 것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 (사이.) 그건 거짓말이다. (사이.) 걸작품을 써내겠다는 환상. 신의 섭리에 대한 항변으로 (짧게 웃는다.) 끝을 맺을 작정이다. (웃음이 연장되자, 크랩도 같이 웃는다.) 그 온갖 비참함을 겪고 남은게 뭐야? 초라한 녹색 코트를 입고 기차역 플렛홈에 서있던 소녀? 아니라고? (사이.)
그 옛날의 눈동자가 —
(크랩은 스위치를 끈 뒤, 생각에 젖다가, 시계를 보고나서, 일어나 무대 뒤 어둠 속으로 간

다. 10초. 펑 하는 코르크 마개 빠지는 소리. 10초. 두 번째 코르크 마개 빠지는 소리. 10초. 세 번째 코르크 소리. 10초. 짧게 떨리는 노래소리 터져나온다.)
크랩 : (노래한다.) 어느덧 낮은 지나가고,
밤이 가까이 다가오누나,
저녁의 그늘이 —
(발작적인 기침. 그는 조명이 비치는 쪽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입을 닦은 뒤, 스위치를 켜고 다시 들으려는 자세를 취한다.)
테이프 : 그 옛날의 눈동자가 두 눈을 반짝이며 다시 돌아와 주기라도 바라는 듯한 마음으로 가버린 날들을 돌아볼 때면, 오랜 과부신세로 (크랩은 움찔한다.) 살다가 그 해 늦 가을 어머니가 몸져 누운 채 임종을 맞던 운하 위의 그 집이 떠오른다. 그리고 —
(크랩은 스위치를 끄고, 테잎을 다시 약간 감은 뒤, 기계에 귀를 더욱 가까이 갖다대면서 스위치를 켠다.) —
오랜 과부신세 끝에 임종을 맞고, 그리고 —
(크랩은 스위치를 끄고, 고개를 쳐든 다음 공허한 눈으로 자기 앞 쪽을 응시한다. 과부신세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의 입술이 움직인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는 일어나 무대 뒤쪽을 지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사전을 들고 들어와서는 그것을 책상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더니 그 낱말을 찾아본다.)
크랩 : (사전을 보면서 읽어본다.) 과부나 홀아비로 남겨진 또는 살아가는 상태나 처지. (고개를 쳐든다.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남겨진 또는 살아가는?…… (사이. 그는 다시금 사전을 들여다보며 읽는다.) 홀로된 이의 상복 차림새…… 또한 동물에게도 쓰임, 특히 새의 경우…… 과부새 또는 멋장이새…… 수컷은 까만 깃털을 하고 있고…… (그는 고개를 쳐든다. 만족하여.) 과부새라!
(사이. 그는 사전을 덮고, 스위치를 켠 다음, 계속 듣는 자세를 취한다.)
테이프 : — 제방 곁에 있는 그 벤취에서 그 미망인의 창문을 볼 수가 있었다. 살을 에이는 바람을 맞으며 나는 거기에 앉은 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를 빌고 또 빌었다. (사이.) 늘 보던 두 세 명의 사람들, 보모들, 어린이들, 늙은 남자들, 개들을 제외하곤 지나가는 사람하나 없었다. 내가 아주 잘 알만한 대상들이었다 — 오, 내가 그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기만 한다면 말이다! 새하얗고 격식에 맞는 옷차림에, 말할 수 없이 풍만한 젖가슴, 커다랗고 까만 차양을 단 유모차를 끌고 있어서 장례식 분위기에 더없이 어울리던, 우수에 찬 젊은 미인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내가 그녀 쪽을 바라보자 그녀 역시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용기있게 — 처음 뵙겠습니다 — 하자 경찰을 부르겠노라고 위협을 해 왔지. 내가 자기의 정

조라도 노렸다는 듯이! (웃어제낀다. 사이.) 아 그녀의 얼굴! 그 눈동자! 마치…… (머뭇거린다.)…… 귀감람석 같았어! (사이.) 아, 젠장…… (사이.) 내가 거기 있었을 때였는데 (크랩은 스위치를 끄고, 생각에 잠긴다. 스위치를 다시 켠다.) — 창에 차양이 내려졌다. 로울러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의 차양이었는데 갈색에다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지. 그때 나는 생각을 간추릴 수가 없어서 자그맣고 하얀 강아지한테 그저 공만 던지고 있었어. 퍼뜩 고개를 쳐들고 보니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야. 마침내 모든게 끝나버리고 지나가 버린 것이다. 나는 공을 손에 쥔 채 잠시 넋놓고 앉아 있었던가봐. 그랬더니 강아지가 마구 짖어대며 내 손을 할퀴어댔지. (사이.) 한 때, 그녀의 한 때, 나의 한 때. (사이.) 개의 한 때. (사이.) 드디어 내가 공을 강아지에게 주자 녀석은 공을 살짝, 아주 살짝 입에 물었지. 작고, 오래되고, 까맣고, 딱딱하고, 탄력있는 고무공이었어. (사이.) 죽는 날까지 그 공을 손에 쥐었던 순간의 감촉을 잊지는 못하리라. (사이.) 간직했어야 하는건데. (사이.) 그런데 개한테 주고말다니.

(사이.)

아 제기랄……

(사이.)

그 잊을 수 없는 3월의 밤이 올 때까지는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의기소침하고 곤궁했던 한 해였다. 결코 잊을 수 없을 그 제방의 끝이며 사납게 울부짖던 바람. 그 속에서 갑자기 나는 모든 것을 본 것이다. 마침내 비전을 잡게 되었다. 이 저녁에 나는 내가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것을 주로 녹음해 둬야 하겠다. 나의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그것이 따뜻한 것이든 싸늘한 것이든 간에, 떠올리고자 애써도 기억 속에 남아있을 여지가 없을지도 모를 그 순간을 대비해서, 기적을 마련키 위하여…… (머뭇거린다.)…… 기억에 불을 지필 불씨를 남기기 위해서 말이다. 내가 그때 별안간 본 것은 이런 것이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믿어온 신념으로써 이른바 — (크랩은 조바심이 나서 스위치를 끄고, 테이프를 앞 쪽으로 돌린 다음, 다시 스위치를 넣는다.) — 등대 불빛 속에서 거대한 화강암 바위 위로 물거품이 흩어져 날고, 풍속계는 프로펠러처럼 맹렬히 돌고 있던 그 때, 나는 마침내 깨달았던 것이다. 내가 늘 떨쳐버리고자 애썼던 어둠이야말로 사실은 내가 가장 — (크랩은 욕설을 퍼부으며, 스위치를 끄고, 테이프를 앞으로 돌린 다음, 다시 스위치를 켠다.) — 이해와 열정의 빛으로 내가 그 폭풍우와 밤을 용해시키기 전에는 깨부술래야 깨부술 수 없는 결합체인 까닭에 — (크랩은 더 큰 소리로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스위치를 끈 다음 테이프를 앞으로 돌리고 다시 스위치를 켠다.) — 얼굴

을 그녀의 가슴에 묻고 손을 그녀의 손 위에 포갰다. 우리는 거기 꼼짝않고 누워있었다. 그러나 우리들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거렸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부드럽게, 아래 위로, 좌우로, 흔들렸다.

(사이.)

자정이 지나갔다. 그토록 고요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지상에는 아무 것도 살지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사이.)

여기서 이번 릴의 녹음을 끝내 —

(크랩은 스위치를 끄고, 테이프를 도로 감고, 다시 스위치를 켠다.) — 밑이 평평한 배를 노저어 호수 위 쪽으로 갔다. 둑 주변에서 목욕을 한 다음, 물결을 따라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배를 물결에 내맡겨 버렸다. 그 여자는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눈은 꼭 감은 채 배 밑바닥에 몸을 쭉 펴고 누워 있었다. 햇볕은 알싸하게 내리붓고, 미풍이 혹간 스쳐가고, 물결은 싱싱하게 출렁였다. 나는 그녀의 장딴지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고는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구즈베리 열매를 따다가 그랬어,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가망이 없어, 따라서 관계를 계속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라고 내가 되풀이 얘기하자,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 끄덕였다. (사이.) 내가 그녀더러 나 좀 보라고 했더니 잠시 후 — (사이.) — 잠시 후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작열하는 태양으로 인해 가늘게 치켜 떠졌다가 도로 감겼다. 내가 그녀 위로 몸을 굽혀 얼굴에 그늘을 지어주자 그녀의 두 눈이 열렸다. (사이. 낮은 목소리로.) 못참겠어. (사이.) 우리는 갈대의 줄기와 잎들 사이에서 출렁거리고 헤매었다. 갈대들이 뱃머리에 쓰러지며 한숨짓던 그 정경이라니! (사이.) 나는 얼굴을 그녀의 가슴에 묻고 손은 그녀의 손에 포갠 채 그녀 위에 엎드렸다. 우리는 거기 꼼짝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거렸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부드럽게, 아래 위로, 좌우로, 흔들렸다.

(사이.)

자정이 지나갔다. 그토록 고요한 —

(크랩은 스위치를 끄고, 생각에 잠긴다. 마침내 그는 주머니들을 뒤지다, 바나나를 잡자 끄집어내서 찬찬히 살펴본 뒤, 도로 집어넣고, 다시 주머니 속을 뒤져, 봉투를 끄집어 낸다. 다시 주머니 속을 더듬는다. 봉투를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일어나 무대 뒤 쪽 어둠 속으로 걸어간다. 10초. 병이 유리잔에 부딪는 소리가 들려오고, 뒤이어 탄산수 따르는 소리 짧게 들린다. 10초. 병과 유리잔만 부딪는 소리. 10초. 그는 다시 어딘지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조명이 비치는 지역으로 걸어나와 책상 앞 쪽으로 가더니,

(열쇠 꾸러미를 꺼내, 눈 높이까지 쳐들고는, 열쇠를 하나 골라내어 첫 번째 서랍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더듬어보더니, 릴을 하나 꺼낸 다음 자세히 살펴본 뒤, 서랍을 잠그고, 열쇠는 주머니에 넣은 뒤 의자로 돌아가 앉는다. 릴을 녹음기에서 꺼내 사전 위에 올려놓더니, 녹음이 안된 새 릴을 녹음기에 걸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뒤 쪽을 살펴보고 나서 책상 위에 올려놓더니, 스위치를 켜고, 목청을 가다듬고 녹음을 시작한다.)

크랩 : 방금 전에, 30년 전의 멍청하기 이를데 없는 내 자신의 얘기 소리를 들어봤다. 내가 그토록이나 형편없는 녀석이었을 줄은 몰랐다. 아무튼 그 모든 우여곡절이 지나가 버렸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사이.) 아! 그녀의 그 눈동자— (상념에 잠기다가, 녹음기가 그냥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퍼득 깨닫고 스위치를 끈 다음, 다시 생각에 잠긴다.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있었다, 모든 것이. 이 케케묵고— (녹음이 안되고 있음을 깨닫고 스위치를 넣는다.) 모든 것이 다 있었다. 모든 것이. 이 케케묵고 오물 구더기의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존재했던 온갖 빛과 어둠과 굶주림과 질펀한…… 향연이! (소리친다.) 그렇구 말구! (사이.) 그런 것들을 외면하다니! 멀대같은 새끼! 애들이 숙제하듯이 마음을 가두고 작품에만 매달리다니! 빌어먹을 놈! (사이. 지친듯이.) 아, 제기랄, 그 녀석이 옳았는지도 모르겠어. (사이.) 그 녀석이 옳았을지도 몰라. (골똘히 생각에 빠진다. 퍼뜩 깨닫는다. 스위치를 끈다. 봉투를 살펴본다.) 쳇! (봉투를 구겨서 내던져버린다. 다시 생각에 빠진다. 스위치를 켠다.) 할 말이 없다. 단 한 마디도. 이제와서 한 해라는게 도대체 뭐란 말야? 놋 요강에 시금털털한 토악질을 해대는 것과도 다를게 없잖아. (사이.) 흥청망청 말잔치나 하다니. (즐거움에 겨워.) 릴ㄹㄹㄹ— ! 지나간 50만분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 (사이.) 17가지가 팔리고, 그 가운데 11가지는 외국의 공공도서관에 도매금으로 팔렸다고 한다. 나도 꽤 유명해졌나보다. (사이.) 1파운드 6실링 얼마였더라. 틀림없이 8펜스 였을 거야. (사이.)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기 전에 한 두 차례 기어나갔을 뿐이다. 공원에 앉아 덜덜 떨면서 꿈에 취해 내 자신을 불살라 버렸으면 하고 바랐다.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사이.) 최후의 백일몽이었다. (격렬하게.) 까짓거 잊어버려! (사이.) 또 다시 에피(*Effie*)를 읽으며 눈을 망쳤다. 하루 한 페이지 씩 읽으며 다시금 눈시울을 적신 것이다. 에피…… (사이.) 그 북쪽 발틱 해변, 소나무 숲, 그리고 모래 언덕이 있던 거기서 그녀와 함께 행복할 수 있었다. (사이.) 나는 행복했던가? (사이.) 그럼 그 여자는? (사이.) 쳇! (사이.) 홰니(*Fanny*)가 두어 차례 찾아 왔었지. 뼈만 앙상하여 늙은 유령같은 창녀. 많이 할 수는 없었으나 사타구니를 한 번 내질러 버리는 것 보다야 훨씬 나았으리라. 마지막 번은 그런대로 괜찮

았다. 나이답지 않게 잘도 하시네요 하기에 그대를 위해 이때껏 저축해 왔거든 하고 대꾸해 줬지. (사이.) 한 번은 저녁 예배에 나갔었다. 반바지를 입던 시절의 기분으로. (사이. 노래한다.)

어느덧 낮은 지나가고,
밤이 가까이 다가오누나,
저녁의 그늘이 — (기침을 하고 나서, 거의 들릴듯 말듯한 소리로) —
아직도 하늘위에 걸려있는데.

(숨을 가쁘게 몰아쉰다.) 꾸벅꾸벅 졸다가 교회의 의자에서 넘어졌지. (사이.) 밤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다. 최후의 노력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그때는 — (사이.) 아! 빌어먹을! 이제 그놈의 술은 그만 마시고 가서 자빠져 자기나 해. 이런 헛소리는 내일 아침에 계속해도 되잖아. 아니면 이대로 그냥 놔두든가. (사이.) 이대로 그냥 놔둬버려. (사이.) 어둠 속에서 버티고 드러누운 채 — 정처없이 헤매보는 거야. 다시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작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빨갛게 익은 깨끗한 산딸기를 따는 거다. (사이.) 다시 한 번 안개 자욱한 주일날 아침에 여자를 데리고 크로간 산 (코노트 지방 서쪽의 산이름)으로 가서 우두커니 서서 종소리를 듣는거다. (사이.) 그런 저런일 있잖아. (사이.)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라구. (사이.) 그 모든 지난 날의 비참했던 일들을. (사이.) 네놈한테는 한 번으로는 부족해. (사이.) 그녀의 몸 위에 엎어지는 거야.

(긴 사이. 그는 느닷없이 녹음기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스위치를 끈 다음 테이프를 확 잡아빼서는 내던져 버리고, 다른 테이프를 걸어, 그가 듣고싶은 부분까지 앞으로 돌린 뒤 스위치를 넣고, 앞 쪽을 응시한 채 귀를 기울인다.)

테이프 : — 구즈베리 열매를 따다가 그랬어,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가망이 없어, 따라서 관계를 계속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라고 내가 되풀이 얘기하자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 끄덕였다. (사이.) 내가 그녀더러 나 좀 보라고 했더니 잠시 후 — (사이) — 잠시 후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작열하는 태양으로 인해 가늘게 치켜 떠졌다가 도로 감겼다. 내가 그녀 위로 몸을 굽혀 얼굴에 그늘을 지어주자 그녀의 두 눈이 열렸다. (사이, 낮은 목소리로.) 못참겠어. (사이.) 우리는 갈대의 줄기와 잎들 사이에서 출렁거리고 헤매었다. 갈대들이 뱃머리에 쓰러지며 한숨짓던 그 정경이라니! (사이.) 나는 얼굴을 그녀의 가슴에 묻고 손을 그녀의 손에 포갠 채 그녀 위에 엎드렸다. 우리는 거기 꼼짝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거렸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부드럽게 아래 위로, 좌우로 흔들렸다.

(사이. 크랩의 입술이 움직인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자정이 지나갔다. 그토록 고요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지상에는 아무 것도 살지 않는듯한 느낌이었다.
(사이.)
여기서 이번 릴의 녹음을 끝낸다. 3번 — (사이.) — 상자, 5번 — (사이.) — 릴. (사이.) 내 생애의 가장 좋은 날들은 지나가버린 것 같다. 행복해질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시절이 다시 왔으면 하고 바라지는 않겠다. 지금 내게 그때의 그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님에랴. 그렇다, 나는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다.
(크랩은 꼼짝도 않은 채 앞쪽을 응시하고 있다. 침묵 속에서 테이프만 돌아가고 있다.)

막

무언극 I *Act Without Words I*